



수사나 마틴 벨몬테 | Susana Martín Belmonte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

Ex-chief Economist REC Citizen Currency- Scientific Coordinator  
MedTown Project, Spain

수사나 마틴 벨몬테(Susana Martín Belmonte)는 경제학자이자 연구원, 작가, 시민운동가입니다. 대외 무역에서 경력을 시작하였고 2000년에 온라인 사업으로 전직하였으나 줄곧 통화개혁, 통화·금융 혁신, 보완·대안 화폐에 천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금융 시스템의 실체, 환경적 지속가능성, 소득·자산 불평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비민컴(B-MINCOME)’ 프로젝트 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市)의 시민 가상화폐 ‘REC’를 도입한 후에 현재 유럽 ‘메드타운(MedTOWN)’ 프로젝트(2019~2022)에서 과학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스마트도시 석사과정(UdG)’에서 보완화폐를 가르쳤고 이 분야에 대한 여러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교(UAM)의 정보기술연구센터(CITIUS)에서 전자상거래 석사과정의 교수로 재직하고 스페인 헤로나대학교(UdG)에서 보완화폐를 가르치며 이들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Susana Martín Belmonte is an Economist, Researcher, Author and Activist. She began her professional career in foreign trade and in 2000 she switched to online business, however, Susana is committed to the field of monetary reform, monetary and financial innovation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currencies. Her works include an independent research on the true nature of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and its impact on the real economy,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on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After launching the REC Citizen currency in the city of Barcelona under the B-MINCOME EU project (2016-2019), she currently is the scientific coordinator of the European MedTOWN project (2019-2022). Susana has been a professor of e-commerce in the Master's degree Citius (UAM), and has taught complementary currencies in the Master of Smart Cities (UdG) and is the author of different publications and reports in this field.